

제1막: 주말의 입주지원센터, 상담 테이블을 펴다

2025년 9월 13일 토요일, 청담 르엘 아파트 입주 현장. 평일에는 직장 때문에 구청을 방문하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우리는 주말을 반납하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입주지원센터 근처에 간이 천막을 치고 상담 테이블을 펴자, 입주 절차를 배우러 온 주민들이 하나 둘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취득세 상담도 해주나요?” 한 중년의 조합원 부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일반 분양자와 달리 취득세 산정 방식이 복잡해 많은 분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미리 준비해 간 자료를 펼쳐 놓고, 부부의 상황에 맞춰 예상 세액과 납부 기한을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말이다 달라서 답답했는데, 구청 담당자가 직접 설명해 주니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안도하는 부부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휴일 근무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2막: 이 책자, 하나 더 가져가도 될까요?

이날의 인기 스타는 단연 우리가 자체 제작한 안내 책자 내 집, 내 세금이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려운 세법 서적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민원 전화를 받으며 입주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만 뽑아 만든 알짜배기 자료집이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언제까지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은 무엇인지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이 Q&A 형식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준비해 간 500부의 책자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광고만 잔뜩 뜨는데, 이걸 정말 필요한 내용만 있네요. 이웃집에도 주고 싶은데 하나 더 없나요? 주민들의 뜨거운 반응에 우리는 추가 인쇄를 약속해야 했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라지만, 정작 구민들이 믿고 볼 수 있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갈증이 얼마나 컸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